

| | | 번호: OP-G-002 | | | | | | | |
|-----------------|---|--------------|------|------------|----|--|--|--|--|
| 제 목 | 노인의 건강행위가 신체기능제한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Health Practices that Predict Functional Recovery in Older Persons | | | | | | | | |
| 저 자 및 소 속 | 이윤환, 박경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Yunhwan Lee, Kyung-hye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 | | | | | | |
| 분 야 | 의료관리 [노인보건] | 발 표 자 | 이윤환 | 발 표 형 식 | 구연 | | | | |
| | | | 일반회원 | | | | | | |
| 목적: | 신체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제한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의 상당수는 시간에 따라 기능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제한의 회복에 건강관련행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고자 하였다. | | | | | | | | |
| 방법: | 연구에는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원시종적노화연구(SLAS)의 2,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완료자 486명을 대상으로 Physical Functioning (PF) 척도의 상지 및 하지 신체기능제한 전체 5개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312명에 대해 1년 후 기능제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위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건강행위 변수로는 금연, 신체적 활동, 정상 BMI (body mass index), 적당음주, 정기검진을 포함하였다(이변량 분석결과 금연은 기능회복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연령, 성, 결혼상태, 교육정도, 평생직업, 주관적 건강인식, 우울증상, 인지장애, 만성질환, 정서적 지지 변수를 통제하였다. | | | | | | | | |
| 결과: | 추적조사결과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 중 30명(9.6%)이 기능회복을 보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75%는 네 가지 건강행위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변량 분석결과 네 가지 건강행위 모두 기능회복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신체적 활동을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높은 기능회복률을 보였다($OR=3.26$, 95% CI: 1.29-8.28). 또한 여러 건강행위를 병행할수록 기능회복의 가능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세 가지 이상 건강행위를 하는 경우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33배 높았다. | | | | | | | | |
| 결론: | 신체기능제한을 지닌 지역사회 노인에게 건강행위는 기능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러 건강행위를 동시에 할수록 기능회복의 효과가 큰 것을 감안할 때 노년기 건강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 | | | | | | | |